

글쓰기의 출발 – 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

김 태 환*

글쓰기 교실의 <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>는 2004학년도에 처음 시작되어 이번으로 두 번째 과정이 마무리되었다. 필자는 <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>를 기획하고 진행해온 입장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. 2학기에 진행된 코스워크는 전체 프로그램과 강연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 코스워크와 큰 차이는 없었다. 다만 강의 안과 내용의 세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, 영화평이 새로운 강좌로서 추가되었다. 2학기 전체 프로그램은 오른쪽 표와 같다.

표에 나타나듯이 7차 워크숍을 제외하면 매 회 두 개의 강연이 끝난 뒤 35분간의 실습 시간이 있었다. 실습의 강화는 2학기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. 1학기 코스워크의 경우 참가자 수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던 까닭에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 형식을 벗어나지 못했던 반면, 2학기에는 1회 참가자 수를 40~50명 선으로 제한하고 별도의 실습 시간을 두어 학생들이 강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게 했다. 실습은 두 반으로 편성되어 진행됐고, 이 때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, 프리라이팅, 풀어쓰기 등과 같이

회차	주제
1차	일반론/아이디어 만들기
	연구문제와 핵심주장 만들기
	실습
2차	목차 구성과 논증의 방법
	흐름을 타는 글쓰기
	실습
3차	도서관 DB이용 방법과 온라인 정보 검색
	자료의 독해 및 평가
	실습
4차	문장론
	맞춤법
	실습
5차	인용법, 주, 참고문헌
	수정과 편집
	실습
6차	실험 보고서
	조사 보고서
	실습
7차	서평
	문학작품 분석
	영화평

2004년 2학기 <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> 프로그램

강연 시간에 배운 글쓰기 기법을 직접 시험해 보거나, 다른 학생들의 리포트를 읽고 문제점, 잘된 점, 개선 방안에 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 이로써 수동적으로 강의를 듣기만 할 때는 추상적으로 남아 있던 지식이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지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. 코스워크가 끝날 때마다 실시된 설문 결과에서도 실습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

*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선임연구원

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능력의 빠른 향상을 바라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의 코스워크 참여가 과연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불만이나 회의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.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아니라 하더라도, 〈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〉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점들은 그밖에도 얼마든지 있다. 글쓰기교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숙고함으로써, 새 학기에 더욱 발전한 모습의 코스워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.

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. 과연 코스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얼마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? 한 학기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코스워크에 참여한다면 실망하기 쉽다. 물론 코스워크에서 어느 정도 글쓰기의 기술을 배우기는 하지만, 이러한 기술도 한번 익혀서 실제 글을 쓸 때 바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. 코스워크는 잘 쓴 글의 기준은 무엇인지, 또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,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. 코스워크의 이수는 글을 잘 쓰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뿐, 결코 글쓰기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 글쓰기 실력은 오직 글을 직접 쓰고 또 써 봄으로써 점차 향상시켜 갈 수 있다.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좋은 타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골프를 잘 칠 수는 없을 것이다. 이론을 배운 다음 그에 따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 무수히 많은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. 글쓰기



〈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〉 4회 워크숍 ‘자료의 독해 및 평가’에서 김태환 선임연구원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관련 자료를 실습하고 있다. 이번 코스워크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실습의 강화였다.

도 이와 다르지 않다.

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코스워크가 안고 있는 다른 결함들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. 코스워크를 앞으로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까?

첫째, 실습의 비중이 더욱 커져야 한다. 실습 시간을 한 시간 정도로 늘려서 학생 모두에게 충분한 참여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고, 강연 내용과의 유기적 연관성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. 강연에서 추상적 원리에 대한 설명을 줄이고, 실습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. 강연자는 강의안과 실습 항목을 체계적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.

둘째, 학생들의 글쓰기 프로젝트와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. 글쓰기교실에서는 앞으로, 한 학기 동안 논문을 구상하고 완성해야 하는 학생들이 〈리포트 작성법 코스워

크>에 참여할 경우 코스워크의 진행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글을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글쓰기교실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. 혹은 그런 학생이 실습 시간에 자신의 프로젝트 일부를 –예컨대 주제, 목차 구성 등–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토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.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코스워크에 참가한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학습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.

셋째, 지금까지 <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>는 학기초에서 학기말까지 격주로 진행되었는데, 이는 코스워크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. 글쓰기교실에서는 이

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는 매주 코스워크 학기 중반에 모든 과정을 끝낼 예정이다. 이것은 또한 시험이나 기말 리포트에 쫓겨 코스워크의 마지막 강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.

끝으로, 글쓰기교실에서는 한 회 코스워크의 참가 인원을 제한하는 데 대한 보완 조치로 코스워크의 개최 회수를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 이는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높이면서도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. 물론 최종적 결정은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달려 있다. **▣**